

리세로플러스정

■ 성분 및 그 함량 : 1정 중

리세드론산나트륨2.55화물(USP)(리세드론산나트륨으로서 35mg)..... 40.162mg
클레칼시페롤농축물(분말상)(EP)(클레칼시페롤로서 5,600IU)..... 56.0mg
첨가제(동물유래) : 유당수화물(소의우유), 젤라틴(소의가죽)

■ 성상 : 옅은 주황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

■ 효능 : 효과 :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

■ 용법 · 용량

- 성인 : 1약 1정을 매주 1회 경구 투여
 - 고령자 : 고령자(60세 이상)에서 미약의 생체 이용률과 약동력은 젊은 사람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아 : 소아와 성장이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장애 환자 :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이 30ml/min미만인 환자는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ml/min미만인 심한 신장애 환자에서는 금기입니다.
- 음식물은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충분한 흡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복용합니다.
아침식사 최소 30분 전에 복용하거나 또는 하루에 여러 차례로 음식물이나 음료수의 섭취 전후로 최소 2시간 떨어져서 복용합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 쉽게 도달시키고 식도 자극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똑바른 자세(upright position)로 충분한 양의 충분한 물(170 ~ 230ml)과 함께 복용합니다. 광천수를 포함한 다른 음료수와 함께 복용시 이 약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은 구강인두의 궤양과 가능성 때문에 씹거나 씹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복용 후 최소 30분 동안 눕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가 음식물로부터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큰 환자 (예, 70세 초과 환자, 요양소에 있는 환자, 만성 질환자)는 비타민 D 보충제의 추가적인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흡수장애 중증군이 있는 환자는 더 높은 용량의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25-hydroxyvitamin D 농도 측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일 비타민 D 권장량은 400 IU에서 800 IU입니다. 이 약은 주 1회 복용으로 일일 800 IU 비타민 D 일주 일 분량을 제공합니다.

환자가 정해진 복용일에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기억한 그날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다음 복용은 기존에 정해진 복용일에 다시 복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날 2정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 이 약은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마찬가지로 상부 위장관 점막에 국소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때때로 출혈과 함께 식도염, 식도궤양, 식도파열과 같은 식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으며, 드물게 식도폐색 또는 천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심하여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식도 반응의 조절을 보이는 모든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연하곤란, 연하통 또는 흉골후방의 통증, 속쓰림의 발생 또는 악화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키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 누워 있거나, 이 약을 충분한 양의 물(170 ~ 230ml)과 함께 복용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식도 자극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심각한 식도 이상반응의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그러므로 증발 · 용량용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증발, 용량용). 정해진 정제에 지시된 용량을 따르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치료는 적절한 한도까지 감속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상부 위장관 점막을 자극시킬 수 있으므로 연하곤란, 식도질환, 위염, 십이지장염 또는 궤양과 같은 상부 위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위국의 피부 주사에서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시 일부 증상의 합병증을 수반한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대조임상시험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라

- 식도협착 또는 무이완증과 같이 식도 배출을 지연시키는 식도이상 환자
- 이 약의 구성분이나 첨가제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 저 칼슘혈증 환자
- 30분 이상 똑바로 앉거나 서서 없는 환자
- 중증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ml/min미만인 자)
- 이 약의 유효성을 함유하고 있으며,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됩니다.

3. 이상반응

-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리세드론산나트륨정5mg을 투여한 군에서는 이상반응은 위약군과 유사하였으나,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 또는 중등도였고, 이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중증의 이상반응을 나타난 환자는 위약군에서 24.9%로 리세드론산나트륨정5mg을 투여한 환자(26.3%)와 유사하였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시험을 중단한 환자는 위약군과 리세드론산나트륨정5mg을 투여한 환자에서 각각 14.4%, 13.5%였습니다. 2%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고, 리세드론산나트륨정5mg을 투여한 군에서 위약군보다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3상 임상시험에서 위약과 비교시 리세드론산나트륨정 투여군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 반응 발현율 (2% 이상)				
전신계	위약 % (1914명)	리세드론산나트륨정 5mg투여군 % (1916명)	전신계	위약 % (1914명)
전신계			골이상	3.2
근골격계			다리 경련	2.6
근골격계			관절염	2.9
근골격계			간이상	2.5
근골격계			신경계	6.2
근골격계			신경통	5.4
근골격계			신경통	4.5
근골격계			신경통	3.0
근골격계			신경통	3.5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1
근골격계			신경통	1.8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6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5.0
근골격계			신경통	3.2
근골격계			신경통	2.